

국내 도시탐색구조체계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Developing Urban Search and Rescue System in Korea

이인선¹⁾·백민호²⁾
Lee, In Sun·Back, Min-Ho

요 지

21C 고도의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과밀화 및 초대형·초고층 건물의 비약적인 확산은 재난의 규모와 양상에 변화를 가져오며, 도시형 재난재해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과제로 안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및 뉴 테러리즘의 경향은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재난으로 인한 다수인명피해에 대한 방호기능의 중요성과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와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분야별 전문대응조직과 스페셜리스트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재난대응단계에서 지진 등 건물붕괴로 인하여 동시다발적인 초대형 재난재해 시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의 대책으로 도시탐색구조 체계의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도시탐색구조, 인명탐색, 인명구조, 국제구조대, 첨단탐색장비, 인명구조견, USAR, INSARAG

-
- 1) 정회원·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소방방재학부·석사과정·(E-mail: eis119@korea.kr)
2) 정회원·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가을철 소나무림에서의 강우 후 연료습도 변화분석
Analysis of Fuel Moisture Contents Change after Precipitation
at Pine Forests during the Autumn

권춘근¹⁾·이시영²⁾·이명욱³⁾·이해평⁴⁾
Kwon Chun-Geun, Lee Si-Young, Lee Myung-Woog, Lee Hae-Pyeong

요 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영동지방 침엽수림에 대하여 임분밀도별 낙엽층, 부식층, 토양 상·하층에 대하여 연료습도 변화를 실측한 결과 낙엽층의 경우 소임분은 3일차 되는날 산불 초기 발화위험성이 나타났으며, 부식층의 경우 강우 익일 후 145-180%의 높은 연료습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소임분은 강우 후 6일차가 되어도 약 47%, 중·밀임분의 경우 60% 이상의 연료습도를 보이고 있어 산불 초기 발화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 1층의 경우 강우 익일에는 30%-42%의 연료습도를 나타냈고, 6일 후에도 20% 이상의 연료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토양 2층의 경우는 임분밀도, 시간경과와는 거의 상관없이 일정한 연료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연료습도, 낙엽층, 부식층, 토양층

-
- 1) 정회원·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박사과정·(E-mail: kcg3338@kangwon.ac.kr)
2) 정회원·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조교수(교신저자)
3) 한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부교수
4) 정회원·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부교수